

뉴멕시코주
한인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3월호
2012

여선교회 주최 부흥성회

주제: 땅이여 주의 생기로 충만하라 (겔37:6)
기도제목: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장소: 알버커키 한인 연합감리교회

일시: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새벽예배 오전 5:30 (24일은 오전 6시)
낮예배 10:00
저녁예배 오후 7:00

강사 이경숙 전도사

현재 프라미스 교회 협동 전도사
순복음 신약대학 졸업
목사 사모로서 1980년도부터 개척 봉사
20년 목회, 개척 순회 전도함

제1회 장학기금모음 골프대회

주최: 뉴멕시코 한인상공회의소

날짜: 4월 15일 (일요일), 오후 12시

장소: UNM "South" Championship Golf Course
3601 University Blvd. SE
Albuquerque, NM 87106
505-277-4546

참가비: \$80 (저녁식사 포함)

경기방식: 개인전, 신패리오 방식

식사: Samurai Japanese Grill & Sushi Bar
9500 Montgomery Blvd. NE
(SW corner at Eubank)
Albuquerque, NM 87111
(505) 275-6601

상금: 챔피언 \$300, 1등 \$200, 2등 \$100,
장타상 \$100, 근접상 \$100

+순회 영사업무+

2012년 3월 27일 화요일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인회관에서 있습니다. 영사업무가 필요하신 분은 미리 준비해 주세요

뉴멕시코 주 한인회 소식

1. 지난 2월 4일 대보름날에 한인들의 축제가 있었다. 이날 사회로는 이옥주 홍보대사의 수고로 만담과 더불은 재치있는 입담으로 행사 끝까지 웃음꽃이 피었고 특히 이번 행사에는 민주 평화통일 자문위원이신 전태진 피닉스 지회장 내외분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한인사회를 이끌어 오신 소감과 덕담을 들려 주셨다. 이하 사진은 행사에 참석하셔서 환담을 나누시는 교민들의 얼굴들과 임은아 단장이 이끄는 사물놀이팀의 흥겨운 연주가 명절날의 흥을 한껏 돋구는 모습을 담고 있다.



대보름 단체 사진



김두남 회장 홍보대사 이옥주씨 이석종목사

2. 뉴멕시코주 한인총람 발간에 기여한 이경화씨, 이은주씨께 주엘에이 신영성 총영사로부터의 감사장(평화통일 자문위원 피닉스 전태진 저희장님의 대독)과 김두남 한인회장으로부터의 감사장이 수여되었다. 한인총람배부는 각 교회의 광고와 한인 마켓에 담당자들을 통해 한인 사회에 배포되고 있는 중이다. 총람에 관한 문의는 언제든지 한인회를 통해, 웹 사이트를 통해 전달 받을 수 있다.



한인사회의 얼굴들



+순회 영사업무+

2012년 3월 27일 화요일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인회관에서 있습니다. 영사업무가 필요하신 분은 미리 준비해 주세요



광야의 소리

매달 5일에 원고를 마감합니다.
원고나 뉴멕시코주 소식에 관한 기사를 보내시거나
광고를 요청하실 분은 마감 전까지
권구자 부장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도네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흑백: 1/8 페이지-\$20, 1/4 페이지-\$40
칼라: 1/8 페이지-\$35, 1/4 페이지-\$70, 1/2 페이지-\$200

담당Contact: 권구자 Kucha Choy 505-553-1009,
voiceofnm@gmail.com

편집위원: 이철수, 김채원, Joshua shin

§ Voice in the Wilderness §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사물놀이팀: 좌로부터 고길영씨, 이찬미씨, 김옥선씨,
단장: 임은아씨

3. 뉴멕시코주 교역자 협의회와 한인회 임원이 지난 2월 27일 월요일 한인회관에서 미팅을 가졌다.

교역자 협의회의 정기모임이 끝난 후 한인회, 한국학교의 2012년 행사소개와 한인총람 배포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고 미팅이 끝난 후 한인회에서 준비한 저녁식사를 함께 나누었다.



뉴멕시코 한인상공회의소
제1회 장학기금모음 골프대회
Korean-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NM
First Annual Scholarship Golf Tournament

Come help support student scholarship funds
at the First Annual KACCNM Golf Tournament!

Date: Sunday, April 15, 2012, 12 PM
Come early and enjoy free range balls.

Location: UNM Championship Golf Course
3601 University Blvd. SE, ABQ NM
505-277-4546

Entry Fee: \$80 per player (includes dinner)

Format: Individual, New Perio Method

Prizes: Champion: \$300
1st Place: \$200
2nd Place: \$100
Longest Drive: \$100
Closest to the Pin: \$100

Dinner and Award Ceremony will be held at:
Samurai Japanese Grill & Sushi Bar
9500 Montgomery Blvd. NE (SW corner at Eubank)
Albuquerque, NM 87111 (505) 275-6601

For registration or sponsorship, please contact:
Mr. Charles Kim 505-999-8222 chkim4912@yahoo.com
or Mr. Sam Mun 505-991-8888 samkmun@aol.com

제1회 장학기금모음 골프대회

주최: 뉴멕시코 한인상공회의소

날짜: 2012년 4월 15일 (일요일), 오후 12시

장소: UNM "South" Championship Golf Course

3601 University Blvd. SE

Albuquerque, NM 87106

505-277-4546

참가비: \$80 (저녁식사 포함)

경기방식: 개인전, 신폐리오 방식

식사: Samurai Japanese Grill & Sushi Bar

9500 Montgomery Blvd. NE

(SW corner at Eubank)

Albuquerque, NM 87111

(505) 275-6601

상금: 챔피언 \$300, 1등 \$200, 2등 \$100, 장타상 \$100, 근접상 \$100

뉴멕시코 한인상공회의소의 첫 기금 모음 행사를 제1회 장학기금모음 골프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 행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김철 회장님과 (chikim4912@yahoo.com 505-999-8222) 문상귀 사무총장님께 (samkmun@aol.com 505-991-8888)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st Annual KACCNM Scholarship Fund Golf Tournament

Date: Sunday, April 15, 2012, 12PM
Place: UNM "South" Championship Golf Course
3601 University Blvd. SE
Albuquerque, NM 87106
505-277-4546

Entry Fee: \$80 (includes dinner)
Format: Individual, New Perio Method
Dinner: Samurai Japanese Grill & Sushi Bar
9500 Montgomery Blvd. NE
(SW corner at Eubank)
Albuquerque, NM 87111
(505) 275-6601

Prizes: Champion \$300, 1st Place \$200,
2nd Place \$100,
Longest Drive \$100, Closest to the
Pin \$100

KACCNM is hosting its first fundraiser on Sunday, April 15, 2012. If you are interested in entering, volunteering, sponsoring, and/or donating at the First Annual KACCNM Scholarship Fund Golf Tournament, please contact President Charles Kim (chikim4912@yahoo.com 505-999-8222) or General Secretary Sam Mun (samkmun@aol.com 505-991-8888).

-메세이-

생 물 권

이 정 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을 가진 것들은 모두 식물과 동물 그리고 미생물로 나뉜다. 생물의 수는 일천일백억 종을 넘는데, 그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백칠십만 종에는 사람이 이름을 붙여주었다. 생물학자들은 나머지 90퍼센트에 달하는 생물에도 분류학상의 소속·명칭을 차차 바르게 정해주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하버드대학교의 노교수 월슨은 그 90퍼센트의 본 모습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미 알려져 있는 생물의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것

을 '생명의 백과사전'이라 부르면서, 거기에 실리는 정보는 지구를 살리는 데 꼭 필요하며, 구글이 인터넷에 기여한 것처럼 어머니이신 자연에 기여할 것으로 그는 믿는다.

유사이래 지구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왔다. 수렵과 채취의 시대였던 원시 사회에서는 필요한 것들을 지구 즉 자연환경에서 직접 취했다. 이어진 농경사회에서는 자연이 땅과 물 그리고 동식물을 제공했다. 과일, 야채, 그리고 대부분의 동물들이 사람의 먹이가 되었다. 땅 위를 걷거나, 공중을 날거나, 물 속에서 사는 크고 작은 많은 동물들이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원천이었을 뿐만 아니라 옷가지, 피난처, 생활도구, 전쟁을 위한 무기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식물 역시 먹이로서는 물론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를 제공했다. 풀은 의약품, 생활도구, 마시는 차, 겨울철 의류나 피난처의 절연물, 음수 등의 원천이었으며, 나무는 집, 도구, 무기, 장식품, 의약품, 겨울철 말먹이 등의 재료로 쓰였다. 거기에 더하여 산업사회에서도 자연은 공산품의 재료를 사람에게 제공했다.

사람을 포함한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 장소를 생물권 生物圈 이라고 일컫는다. 그 장소는 물 속이나 땅 속 또는 공중 등에 한정되어 있다. 태양의 영향을 받는 행성 가운데 유독 지구만 생물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구의 크기에 비해 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 생물권은 얇은 막이라면 알맞을 하나의 층이다. 생물권에서도 지구의 가장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지각은 지금까지 알려진 백칠십만 종의 생물 중에 백오십만 종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 공간을 표면생태계라고 부르며,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살아 가는 데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정밀한 환경을 유지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곳이다.

대부분의 생물들은 지각의 표면 아니면 그 아래에서 발견된다. 바로 그 생물들의 몸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화학반응 덕택에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동물이나 식물이 죽으면 지표에 존재하는, 흔히 청소부라고 불리는 생물들이 현대의 어느 과학기술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분해하여 그 산물을 먹고 살아간다. 포식자나 기생충이 청소부들을 먹으며, 포식자나 기생충은 또 더 전문화된 생물들의 먹이가 된다.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성과 소멸의 최종 산물은 끝내 식물에게로 돌아가 광합성의 재료가 되는 것이다. 지구상의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개체이면서 전체인,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라는 주장이 옳은 것임을 입증해주는 과학적 사실이다.

생물권은 곳에 따라 다른, 생태계라고 부르는 작은 단위의 총합이다. 생태계는 생물 군과 생물이 생육하는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물질 순환계이며, 생태학은 생태계를 연구하는 생물학의 한 분야이다. 생태학은 개체와 전체가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질서와 균형을 깨트리지 않아야 한다

는 공생의 원리를 실천하려는 데에 궁극적 목표를 두는 학문이다.

사십오억 년 전에 태어난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0년 간의 지구의 평균기온은 역사상 가장 높았으며, 2100년까지 지금보다 화씨 10.4도나 높아 질 것으로 예상한다. 거기다 유래가 없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인구는 2011년에 70억을 넘었다. 지구의 온난화가 초래하는 변화와 날로 증가하는 인구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다. 1500년 이래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생물은 869종에 이르며,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은 무려 18,351종이나 된다.

생태계의 파괴로 생물이 멸종되는 현실을 남의 일인 양 대수롭잖게 여겨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존재의 윤리라는 차원을 넘어 인류의 미래와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식물이나 동물이 살아남지 못하는 환경은 사람이 살기에도 적합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더 많이 망가져서 원상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되어버리기 전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구해내려는 운동에 모든 사람이 힘을 보태야 한다. 다른 생명체들, 특히 동물은 환경에 맞게 자신들을 변화시키는 반면 사람은 자신들에 맞게 환경을 변화시켜 버린다. 다행하게도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인류의 그 관행이 생태계의 파괴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양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살리자는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재생이 가능한 자원을 에너지화하거나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미국원주민들이 오래 전에 남긴 ‘지구는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서 빌린 것’이라는 말의 참뜻을 늦게나마 현세 사람들이 알아차렸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의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온수탱크나 실내온도를 적정온도로 맞춰두기만 해도 전력의 소모가 줄어든다. 샤워시간을 5분 줄이고, 정원에 자생식물을 더 많이 심으면 물의 낭비가 그만큼 줄어든다.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면 공해 없는 물과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토양을 비옥하게 할 수 있다. 친환경적으로 사육한 동물의 고기를 먹되 그 양도 줄이면 지구가 받는 스트레스도 줄어든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폐기물재활용에 참여하는 일을 생활화하여 후손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되돌려주는 데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한 많은 38선

미국에서는 1861년에 일어난 남북 전쟁을 civil war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북전쟁을 한국동란 아니면 6.25사변이라고 부른다. 누가 한국전쟁을 동란이나 사변이란 이름을 붙였는지 이해가 안된다. 한국의 남북전쟁은 결코 그저 동란이 아니기 때문이

다. 북한이 조용하게 살고 있는 남한을 선침했기에 북한침략전(?)이라고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한반도는 엄격하게 따지면 휴전상태이지 완전한 종전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은 끝이났다고 착각하고 있다. 어떤 이는 헛빛정책을 써야 한다고도 했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의 하나로 원조물자를 주어야 한다고 한다. 굶어 죽어가는 북한민들을 인도적 입장에서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맞는 생각인가! 그러나 현재의 이북과 예수님이 지적한 이웃은 전연 상황이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 같다.

북한은 남한을 집어 삼키려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의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원자폭탄을 실험하고 이것을 가지고 무었인가를 얻으려는 잔꾀를 쓰고 있다. 현재 6자회담을 한다고 말만 했지 묘안이 없다고 본다. 북한은 원자폭탄을 만든다고 기를 쓰고 있는데 어째서 남한은 잠만 자고 있을까? 우리들의 실력이 북한에 뒤지고 있는 것일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 변수에 대하여는 잘 가릴부하고 싶지가 않다.

우리 집안은 38선 때문에 크나큰 고통을 겪었다. 우리 가운데 형님은 신체장애자였지만 손재주가 있어서 일본인이 경영하는 양복점에서 재봉사로 일을 하셨다. 아침 일찍이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곤 하셨다. 그분은 실력을 인정받아서 일의 양이 하루하루 늘어나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을 하시며 어떤 때는 밤 12시경에 집에 돌아오는 것을 보곤하였다. 이렇게 분주한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 해방이 된 것이다. 그 일본 주인은 양복점을 단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형님을 혹사시키던 주인이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뀐 것이다. 그 양복점을 사서 운영해보겠느냐고 제의를 해왔지만 우리 집에는 그럴 재정능력이 없어서 포기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양복점을 정리하고 떠날 때까지 계속 일을 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한국은 소련군과 연합군과의 협상으로 남북이 갈라지게 되었다. 제 2차 대전을 시작한 일본은 연합군이 점령했고 죄 없는 한국은 허리가 잘린 것이다. 이 삼팔선이 우리 가족을 참으로 비참한 비극으로 몰아 올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독자들은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베토벤을 알 것이다. 그의 생김새가 어찌나 우리 가운데 형님을닮았던지 흑백 사진을 보면 구별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우리 집에 그 형님의 사진이 있었지만 1.4후퇴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알몸으로 피난했던 그때에 그런 사진까지 쟁길 여력이 없었다. 머리가 약간 곱슬머리이고 오똑한 코가 너무나 비슷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그후 북한은 소련의 공산주의를 따라서 공산국가로, 남한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따르는 민주주의 국가로 탄생하면서 서로 다른 국가로 새 출발을하게 되었다. 북한은 막스 레닌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변질된 공산국가로서 세포조직을 통하여 가

족간의 신의와 자유보다는 서로간의 자아비평과 투쟁을 세뇌하는 체제를 강화하고 있었다. 우리 가운데 형님은 이런 것들이 싫다고 친구들과 무심코 이야기를 나누었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들이 상투어로 잘 쓰는 반동분자로 낙인이 찍혔고, 사상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뚜렷한 죄목도 없이 -----. 우리집안은 이 허무맹랑한 처사에 울분을 참을 수 없었다. 아무리 항의를 해도 헛수고였다. 도대체 사람을 잡아 갈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가족들의 주장이었다. 그저 법에 따라 판결이 날테니까 기다리라는 말뿐이었다.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자니 우리가족은 더 더욱 그들의 처사를 미워하게 되었고, 하나의 반항심으로 나타났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말조심 또 말조심 하라고 역설을 하시는 것이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우리 가운데 형님은 신체장애자인데 그분이 무언을 했다고 감옥에 가두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는 형무소에 수감된 죄수들에게 사식(개인이 음식을 만들어 들이는 제도)을 보낼 수 있었다. 우리도 일주일에 두 번씩 사식을 만들어 보내곤 하였다.

그런데 정말 깜작 놀랄 소식을 알게 되었다. 가운데 형님이 어느 누구의 밀고로 자기가 잡혀 들어왔는지를 알려준 것이다!!! 이 이야기는 007 SPY 영화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할까. 가운데 형님과 작은 형님은 집에서 놀면서 암호로 의사소통하는 game을 하며 놀았다고 한다. 그런데 형무소에 갇혀있던 형님이 이 암호로 누구의 소행인지를 사식을 싸서 보낸 빈 보자기에 실과 바늘로 적어서 보냈던 것이다. 알고 보니 우리 형님과 꽤 가깝게 지내던 형님의 친구였음이 드러났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모두에게 절대로 내색을 하지 못하도록 함구령을 내렸다. 그 친구는 뻔뻔스럽게 가끔 우리집에 와서 형님의 안부도 물고 참으로 안타까운 표정을 짓기까지 하였다. 우리는 그놈이 밀고했다는 내색도 않고 전연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사식을 주려고 형무소에 갔더니 그런 사람이 없다는것이다! 어디로 보냈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네도 모른다고 발뺌을 하였다. 우리집은 갑자기 초상집이 되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참변인가. 몇 일전만 해도 사식을 받았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 것이다. 우리 추측은 그놈들이 고문을 너무 심하게 해서 죽였다고 생각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 형님은 성격이 좀 날카로웠다. 봄도 성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별별 추측을 다 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다 생략한다. 그 후에 일사(1-4) 후퇴 때에 큰 형님, 작은 형님, 그리고 누님은 정처 없이 먼저 남쪽으로 떠났고, 나와 우리 부모님은 학남리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 동네에는 많은 친척들이 살고 있었다. 이전에 나의 아버지는 거기서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더 북쪽으로 북상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피난살이이긴 했지만 여러 친척들의 도움이 있어서 그런저럭 생활하기가 수월했다. 우리들 추측으로는 이 전쟁이 몇 달 안에 끝이 날

것으로 기대 했었다. 그런데 전쟁은 끝나지 않고 휴전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난 와 있었던 곳은 또 다시 이북 땅이 되었다. 우리 가족은 몹시 불안 했다. 요주의 가족으로 낙인이 찍혀서 언제 어떤 벼락이 떨어질지 몰라 늘 공포와 초조한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며 살았다.

한번은 인민군 소대가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도 모든 집을 가택수색하며 젊은 남자들을 잡는 것이었다. 나도 재수 없이 잡혔는데 왜 잡는지도 모르고 따라야만 했다. 그들은 내게 거기 가보면 있다고 하였다. 혹시 인민군? 좀 불안하였다. 어머니는 또한번 놀랬다. 창동(우리 가운데 형님)이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또 경동이까지 잃으면 어떻게 사느냐며 대성통곡을 하시는 것이었다. 모두 6명을 잡았는데 점심때가 되어 그동네 큰집으로 우리들을 데리고 가더니 점심을 내라는 것이었다. 그 집은 마침 우리 김씨 친척집이었다. 나의 아버지는 한가지 묘안(?)을 생각해내고 주인장과 무엇인가 의논하더니 아버지가 그들을 접대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고 막걸리로 소대원들을 먹이고 소대장을 안방으로 안내하고 극진하게 대접하고 술이 전아하게 취하도록 권하면서 정말 수고가 많다고 칭찬을 하였다고 한다. 그 소대장도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낸 다음에 “소대장님 한가지 청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실은 우리 어린것이 저밖에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소대장 대답이 “어느 애입니다?” “저기에 있는 저 애입니다.” “그래요 데려 가세요.”하면서 우리들을 지키는 군인에게 “저 애를 보내!”라고 했다. 아버지는 고맙다고 정중히 인사를 하고 나를 빼내어 빨리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얼마나 우셨는지 벌써 눈이 통통하게 부우셨고 나를 보는 순간 또 나를 껴안고 다시 옮기 시작하셨다. 나도 함께 한참 옮겼었다. 어머니는 나를 보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다. 이런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긴 후부터는 인민군이 토벌하러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우리 몇명은 저수지를 향한 야산 중턱에 방공호를 파서 그 속에 들어가 숨고 나무 옛장을 덮고 몇 시간씩 그 속에 숨어 있어야 했다.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용매도(그 당시 용매도는 남한땅이었고 남한군 첨보병들이 주둔하고 있었다)에서 이상한 편지가 우리 손에 들어 왔다. 경동이라는 아이를 찾는다는 것이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편지를 준 자는 안내원이고 돈을 받고 용매도로 사람들을 빼돌리는 business를 하는 사람이었다. 누가 보낸 편지인지를 안 썼기 때문에 좀 궁금하였다. 내가 답장을 쓰면서 이 편지를 보낸 분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자초지종을 안 형님은 네 작은 형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다시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큰 형님과 작은 형님은 남하해서 유엔 경찰에 지원했고 큰 형님은 경찰 중대장 일을 했고 작은 형님은 중대원으로 일을 했다고 한다. 그 당시 유엔 경찰은 모든 치안권과 다른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작은 형님을 용매도로 파견하고 우리 가족 구출 작전을 짜고 있었

다. 용매도는 육지에서 정확하게 몇 mile인지는 모르지만 바닷물이 셀물일 때 특히 음력으로 그틈때는 물이 완전히 빠져서 쉽게 걸어서 왕래할 수 있었다. 작은 형님의 1차 작전은 나를 구출하고, 2차는 부모님들이었다. 나의 부모님들은 내가 허구한 날 그 야산에서 하루 종일 지내야 하고 토벌군들이 언제 또 들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몹시 불안해했기에 하루 속히 용매도로 가기를 원했다. 이 길잡이 말은 음력 그믐때라야 만 된다는 것이다. 이 안내원은 탈출자들에게 경고했다. 만약 인민군에게 노출될 경우 모두 각자 행동을 해야 한다며 용매도가 어느쪽에 있는지 방향을 알려주었다. 만약 잡힐 경우에는 어디서 출발 했는지 말하면 그 동네는 끝장나니까 조심하라는 것이다. 드디어 탈출시간이 되었다. 부모님들께 인사드리고 떠나기는 하였지만 내 마음은 몹시 착찹했다. 정말 가야하나 아니면 그곳에 놀러 있어야 하나----- 그러나 그 지긋지긋한 방공호 생활도 사실 신물이 났기 때문에 떠나기로 용단을 내렸던 것이다. 우리는 참으로 운이 좋았다. 아무 사고 없이 용매도가 보이는 갯벌 중간지점까지 왔다. 안내원은 여기서 약 30분정도 쉬고 가겠다고 했다. 나도 지고 있던 배낭을 내려놓고 베개 삼아 풀아 떨어져 잠이 들었다. 그런데 나는 꿈에 작은 형님을 본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그 섬에 가서 어떻게 형님을 찾을까 근심하고 있었는데 몇 년동안 꿈에도 안 보이든 형을 만나다니! 참 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새벽에 용매도에 거의 다 왔을 무렵이었다. Oh my God, who is there? 꿈에 본 나의 형님이 나를 맞이하러 나와 있는 것이다!! 형님이 어떻게 여기 나와 있으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지난밤 꿈에 나를 만났다고 했다. 이 Chapter를 애들에게 이야기 했더니 우리 떠느리 월 “Dad, Our Lord helped you!”라고 했다. 그러면 “You should record all the chapters for us.” 글쎄요. 그 악몽과 같은 38선 이야기를 영어로 녹음한다(?). 꽤 힘들 것 같다.

제 2차 작전은 부모님들을 구출하는 일인데 형님이 직접 모시고 나온다는 것이다. 그런데 작은 형은 사변당시 군 차량 정비소에서 정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인민군들이 후퇴할 때 그들 대열에서 도망하여 후퇴하는 인민군과 싸우기도 하며 신천 반란군과 합세하여 신천시를 방위하였다고 했다. 이런 전투경력이 있었든 형님은 서슴지 않고 부모님을 탈출시킬 각오가 되어있었다. 문제는 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용매도를 가려면 꼭 배를 타고 저수지를 건너야만 되었다. 안내원과의 계획은 배로 저수지를 건너는 데까지 만 해주면 그 다음 단계는 형님이 알아서 한다는 것이다. 형님은 민간 복장을 입고 기관단총과 수류탄 몇 개를 가지고 안내원을 따라 부모님들이 거하는 집에 잠입해 들어왔다. 낮에는 그 집에 있는 광에 숨어있었다. 드디어 떠날 밤이 왔다. 아주 침캄한 밤이라 안내원의 배를 타고 가는데 안내원이 늘 다니던 장소가 아니었다고 한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보초병들이

교대를 하는지 아니면 저수지 뚫 길에서 순시를 하는지 말소리가 들려서 먼저 형님이 배에서 물로 뛰어 들어 물이 얼마나 깊은지를 check 했다고 한다. 다행이도 물은 형님 가슴 높이여서 아버지가 물로 내리고 어머니를 세명이 도와 물로 내렸다. 안내원은 배를 되돌려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한다. 그때부터는 형님이 모든 상황을 결정해야 했다. 말소리가 없어진 후 한참 있다가 형님이 저수지 뱃위로 올라갔다. 바다를 향한 벽의 높이가 얼마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시간을 지체할 수도 없었다. 아주 긴박한 순간이었다. 저수지 쪽 벽높이가 형님 키만 했으니까 바다 쪽도 그런 높이라고 추정하고 어머니부터 뛰어 내리게 하였다. 형님이 엎드리어서 어머니 팔을 잡고 조금 있다가 팔을 놓았다. 아무 소리가 없었다. “어머니 팬찮아요?”하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그 다음은 아버지, 마지막으로 형님이 뛰어내렸다. 어머니 있는 곳을 더듬어 보았더니 어머니가 앉아계셨던 자리 바로 옆에는 꽤 큰 바위들이 있었다고 했다. 천만 다행으로 어머니는 그 바위에 부딪히지 않고 개흙이 있는 곳으로 내려 앉았던 것이다. 나는 지금 어머니와 형님의 말을 전하지만 그때는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순간이었을 것이다. 형님은 부모님들을 무사히 용매도로 모시고 오게 되었고 우리들은 가슴에 얼룩진 과거를 회상하며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속담에 원수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우리 가운데 형님을 밀고해서 죽게 만든 그 원수 놈을 의정부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던 것이다 !!! 형님은 북받쳐 오르는 복수심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 자리에서 그놈을 죽여라 두들겨 패고 경찰서로 끌고 가서 고발했다. 경찰서원은 물적 증거가 있어야 그 사람을 억류할 수 있다고 좀 냉랭한 말투였다. 경찰서원과 옥신각신 말다툼하다가 그놈을 복수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하도 기가 막혀서 속이 상해 병이 나셨다. 아무 말도 안하시고 좀 몸이 불편 하시다고만 했다. 야 하늘도 무심한 것일까?

하여간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mission을 마치자 큰 형님은 우리 모두를 인천으로 철수시켰다. 우리는 남한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 김목사님이 가끔하시는 말씀처럼 “지나온 시간 시간을 돌아보면 어려운 고비 고비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해 주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된다. 목사님도 경험했고 나도 경험했고 또한 많은 성도님들도 경험했을 줄 안다. 이런 경험이야 말로 소중한 것이고 이런 경험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다져 주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지 않나 생각하게 한다. 지금은 나의 부모님들도, 큰형, 작은 형, 누님도 다 돌아가셨다. 한 많은 38선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우리 가족 중에 나뿐이다. 그들의 영혼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주님이 계신 곳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도 언젠가는 가야 할 본향을 생각하며 이 글을 마친다.

태초에

에덴 동산의 한 구석에서 아담은 일을 하고 있었다. 온갖 짐승과 식물들을 분류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다. 수백년이 걸리는 힘든 작업이었지만 오직 신이 인간에게만 허락한 지혜로 묵묵히 신의 창조 작업에 동참하고 있었다. 마치 생물학자와 같이 자신의 일에 골몰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의 여인 하와에게도 커다란 즐거움이었다.

하와는 그와같은 아담의 모습을 늘 존경했을 뿐 아니라, 일하는 남성의 아름다움을 자신의 가슴에 넉넉히 담아두었다. 물론 화와도 놀고 먹지는 않았다. 자기에게 주어진 섬세한 감각으로 자칫 같은 종류로 착각해서 놓치기 쉬운 화초들을 찾아내어, 아담의 작업을 말없이 도와주었다.

그날도 하와는 아담을 도우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에덴 동산의 수목들을 하나씩 다시 점검해 나가는 중에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야기를 꺼냈다.

“아담, 그런데 참 이상하죠? 왜 선악과는 한 그루밖에 없죠? 다른 나무들은 같은 종류가 여럿 있잖아요?”

선악과라는 말에 아담은 순간 흠칫했지만 재빨리 감정을 수습했다.

“만일 두 그루나 세 그루가 있었다면 우린 훨씬 유혹에 힘겨울 게 아니오?”

하지만 하와의 호기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아예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담의 예민한 반응이 자체력을 밀쳐내고 튀어나왔다.

“어허, 불경스럽게 어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오?”

하와는 선악과 문제로 아담과 다시 언쟁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이참에 자신의 궁금증과 하고 싶은 말을 다 털어 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제가 자꾸 묻는 것은 그 애길 하나님께 직접 듣지 못하고 당신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아두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저는 항상 모든 것을 당신을 통해서 알아야 하죠?”

하와의 내면에는 아담에 대한 일종의 열등의식이 은근하게 숨어 있었다. 하와가 그런 식의 질문을 던질 때마다 아담의 대답은 뻔했다.

‘그야 뭐, 당신은 내 갈비뼈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지!’

수도 없이 그런 말을 듣지만, 그때마다 하와의 마음 한구석에는 석연치 못한 불안이 남아 있었다.

남자와 여자는 왜 창조 과정이 달랐을까, 하와는 그것이 불만스러웠다. 하와의 심정은 아랑곳 없는 듯 아담은 늘 자연세계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흙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리라. 반면 하와는 아담

의 갈비뼈로 지음 받았기 때문인지 늘 남자인 아담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아담은 자연을 정복하려 하고, 하와는 아담을 정복하고 싶은 것일까?

그러나 하와가 느끼기에 무슨 일이든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는 듯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남자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도 아담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이 하와는 못내 아쉽고 불만스러웠다. 하와의 심정을 충분히 해아린 아담이 말했다.

“여보,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보시오. 고등동물 일수록 나중에 지음 받지 않았소? 당신은 맨 나중에 지음 받았으니까 분명히 최고로 고등한 피조물이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선악과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로 합시다.”

모든 대화가 그렇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와는 늘 펴내는 식이고 아담은 늘 덮어버리는 식이었다.

그날 밤, 아담은 여느 때처럼 편히 잠들 수 있었지만 하와는 밤새워 생각을 펴내고 있었다. 그녀는 발디딜 틈 없이 빼빼하게 다투며 빛나는 창공의 별들을 보면서 아담의 의미를 물고 있었다.

‘아담, 당신은 도대체 내게 어떤 존재인가요?’

아침 이슬이 야생의 풀잎을 타고 내려와 하와의 자존심같은 코 끝에 떨어졌다. 아담은 마치 일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일찍 일어나 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아침 식사는 지극히 간단하였다. 음식을 장만하는 수고나 설거지를 하는 수고가 별로 필요치 않았고, 따라서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과 세상을 즐기는 데 사용할 수 있었으리라. 하와는 손을 머리 위로 뻗어 과일 몇 개를 땠고, 아담은 채소를 몇 줌 쥐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별 말 없이 각자의 일터로 나섰다. 하지만 하와의 발걸음은 일터를 향하고 있지 않았다. 하와는 무의식 중에 에덴 동산의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알다시피 그곳은 금단의 열매가 있는 곳이었다. 동물들도 함부로 다가가지 않는 두렵고 신비한 곳, 근처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아담의 분노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가 그곳을 가보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한 걸음 한 걸음에 금기를 깨뜨리는 묘한 쾌감을 느끼며 그녀는 선악과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선악과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면 자신의 의문에 다소 실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그녀를 인도했으리라. 그곳에는 아직도 이름을 지어주지 못한 종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구실로 하와는 자기 암시를 걸고 있었다.

짐승들의 울음 소리조차 접근을 허용치 않는 듯고요 속에 싸여있던 선악과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와를 기다리고 있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었으니 마치 거미줄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날벌레와 같이 그녀의 운명은 점점 위기를 향하

고 있었다. 뱀.

인간을 타락으로 이끌었던 기원 탓인지도 모르지만, 그 생김새와 치명적인 독성 때문에 인간에게 원수처럼 되어버린 동물, 하지만 애초에는 그다지 경계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던, 오히려 인간의 눈과 생활에 익숙했던 피조물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와가 놀란 까닭은 뱀의 흉물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난 때문이었다. 뱀은 마치 자신은 선악과 따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 나무를 타고 기어다니면서 하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었다. 뱀이 하와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던?”

그것은 뱀이 쳐 놓은 함정이었다. 그녀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너희가 아니고 아담이라고 해야 옳아.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말씀하셨고 난 아담에게 전해 들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유혹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하기 위해 뱀에게 말했다.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반드시 죽는대.”

하와는 자기도 모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을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라고 바꾸어 말했다. 직접적인 표현을 회피하고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미 그 명령의 진위에 대해 혼들리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뱀은 하와에게서 시선을 놓지 않은 채 선악과의 줄기를 한 차례 더 휘어 감았다. 그리고는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은 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는 미끼를 던졌다. 하와는 한참을 서서 망설였다. 그녀는 애초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을 품어본 적도 없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담에게 와서 다소 왜곡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고 만일 그렇다면 실제로는 선악과를 먹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해버린 하와에게 뱀의 유혹은 그럴 듯하게 가슴에 와 닿았다.

‘그래, 이 열매를 왜 금기했는지 이제야 알겠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웠던 거야. 만일 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번 기회는 내가 아담을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셈이지. 정말로 죽는지 먹어보자. 결과는 둘 중의 하나, 죽음 아니면 승리다.’

그런 생각을 하자 그 금단의 열매는 한결 빛깔스럽고 먹음직하게 보였다. 에덴동산 수풀은 여느 날과 똑같이 새소리, 바람소리, 시냇물 흐르는 소리로 태고의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 아름다움 속에서 인류의 비극이 한입에 삼키워지고 있었다.

한편 아직도 동식물의 이름짓는 일을 못다 끝낸 아담은 하와가 보이지 않자 걱정이 되어 그녀를 찾아 다니다가 마침내 에덴 동산의 중앙까지 오게 되었다.

설마 했던 아담은 어렵지 않게 그곳에서 자신의 여인을 발견했다. 그 순간 아담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으나 분명히 하와가 선악과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담은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여보오….”

그러나 하와는 금단의 열매를 이미 다 먹어버린 뒤였으며 두 번째 열매를 아담에게 내밀고 있었다. 아담은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도 모르게 부르르 떨었다.

“어찌된 일이고?”

하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한 개 먹어 봤지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잖아요?”

이미 죽음이 그녀의 몸속에 들어와 있음을 하와는 알 턱이 없었다. 그녀는 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아담에게 전했다. 이제까지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쪽은 항상 아담이었는데 이번에는 하와가 아담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 셈이다. 아담마저도 혼들리기 시작했다. 과연 하와는 죽지 않았고 버젓하게 살아 있었다. 과일은 정말 먹음직스럽게 보였고 뱀의 논리가 훨씬 설득력 있게 여겨졌다. 이전보다 더욱 요염하게 보이는 하와가 아담을 유혹했다. “한 개만 먹어 봐요. 어서. 난 이미 먹었는데 당신만 빠져 나가겠다는 건가요?” 아담은 하와가 전네준 선악과일을 손에 받아 쥐었다. 설사 그것을 먹어서 문제가 생긴다 해도 일을 먼저 저지른 쪽은 하와가 아닌가. 또한 그 여자는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임의로 만들어 준 사람이 아닌가? 아담은 과실의 책임을 지더라도 전적으로 자기 잘못은 아니며 자신에게는 그럴듯한 평계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마음의 또 다른 한 구석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왔고 그것이 양심의 문을 두드렸다. 아담은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여 보았다. 만일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되면 이제 평생 하와에게 끌려 왔고 다니게 될지도 모른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그는 그 열매를 던져버릴까도 싶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영원히 짹을 잊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차마 열매를 던져버리지 못했다.

아담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할건지 아니면 하와의 뒤를 따라야 할건지 망설이고 또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아담은 선악과일을 입안에 넣고 말았다. 서늘한 뱀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 나뭇잎사귀로 알몸을 가리고는 에덴동산의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마침내 올 것이 왔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전과 똑같았지만 그들에게는 마치 뇌성과 같이 들렸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 자신이 결코 하나님의 낮을 피해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절망적으로 깨달았다. 숨겼던 몸을 드러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다.

“누가 너희 벗은 것을 알게 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물음에 자기 잘못을 뒤로하고 아담은 변명부터 늘어놓았다.

“하나님께서 제게 준 이 여인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혹하지만 않았어도 전 끝까지 약속을 지켰을 겁니다.”

아담의 변명은 하와에게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다. 내 인생의 전부로 믿었던 남자가 내게 주는 것이란 겨우 이것이란 말인가? 울컥 배신감이 솟구쳤다. ‘과연 나는 아담에게 어떤 존재였던가?’

아담의 모든 말이 하나하나 고통의 못이 되어 마음깊이 박혀왔다.

‘난 아직도 아담에게 그저 ‘여인’으로 밖에 표현되지 못하는 존재구나!’

아담은 하와가 생겨나기도 전에 이름짓는 일을 해 왔지만, 여태 같이 살면서 자신의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슬픔의 눈물을 쏟아냈다. 그러한 사랑의 고통도 결국 선악과를 먹은 탓일까?

하나님은 또 하와에게도 물으셨다. 하와도 역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안간힘을 썼다.

아담에 대한 배신감은 잠시 접어두고 하와 역시 빠져나갈 생각 뿐이었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와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네 가지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대가로 반드시 죽게 되었고, 남자는 종신토록 노동을 해야 하며,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끝으로 에덴동산에서 당장 추방당해야 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두려웠던 형벌은 네번째였다. 에덴에서의 추방,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나머지 세 가지는 미래형이기 때문에 아직 실감나지 않았지만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그 순간에 앞으로 그들에게 따를 나머지 형벌은 충분히 예감할 수 있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하나님의 친히 만들어 주신 가죽옷을 입고 황무지를 향해 발을 내디뎠다. 아담은 하와가 한없이 원망스러웠지만 또 한편으론 책임을 떠넘긴 데 대해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았다. 아담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여인을 하와라고 이름지어 주며, 이제 형벌의 세월을 살아갈 유일한 동반자로서, 그리고 자신의 여인으로서 하와를 맞이하였다. 하와 역시 자신의 빛나간 판단과 생각을 뉘우치며 이제 다시금 남자의 그늘에서 자신의 안락을 찾는 도리를 선택해야 하였다.

하와의 반란이 그 이후에 또 어떤 형태로 틈새를 비집고 나올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 사건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 결국 서로를 황폐하게 했을 뿐 아무 소득도 없는, 인류 최초의 남자와 여자간의 헤게모니 싸움이었다.

천사들이 에덴동산의 모든 출구와 입구를 봉쇄하고 화염검을 들러 올타리치고 있었다. 에덴 동산의 추억은 이제 그들의 기억속에만 남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어준 가죽옷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척박한 땅을 말없이 걷고 있었지만 머리속엔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며 걱정 없이 살던 때가 불과 어제의 일이다. 바로 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을 암송하신다면..

“아들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임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짓을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나라와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지 마라,

그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으면서,
영원이라는 시간은 생각해보지도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 우리과이의 한 작은 성당 벽에 쓰인 낙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꼭보 해설 (마태복음 1장1-17절)



본 단락은 예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다. 첫 14 세대는 다윗 왕까지고 둘째 14 세대는 바벨론 포로기까지 마지막 14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까지이다. 다윗 왕과 바벨론 포로기와 그리스도의 탄생은 족보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다윗에 의해 든든하게 세워졌던 왕권은 바벨론 포로기를 통하여 무너져 버렸고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구조를 보여준다.¹⁾ “14”라는 숫자는 다윗 왕의 이름과 연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윗(大卫)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볼 때 달렛(달)과 와우(와우)와 달렛(달) 세 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히브리어 자음은 나름대로 수(數)를 가리키기도 한다. 즉 달렛(달)은 숫자 4에 해당하고 와우(와우)는 숫자 6에 해당한다. 결국 다윗이란 이름을 숫자로 계산해보면 $14 = 4 + 1 = 6 + 4 = 10$ 가 된다. 마태는 “14”라는 숫자를 통하여 예수는 다윗 왕의 왕권을 이어받은 분임을 암시하고 있다.²⁾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을 보면 마태는 주로 헬라어 구약 성경 칠십인 역본³⁾(LXX)의 역대상 1-3장을 따르고 있다.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도 족보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 한다.⁵⁾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다말, 라합, 룻, 박세바”와 같은 여인들의 이름이 족보에 언급된 것은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모두 결혼 생활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었다. 근친상 간에 관련된 다말, 기생이었던 라합, 본 남편과 사별하고 재혼하게 된 룻, 간통 당한 박세바 등이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전통은 이 여인들을 칭송하고 있다. 다말의 행위를 “옳은” 행위라고 하며(창 38:26), 라합

을 “의로운” 여인이라고 하고(히 11:31, 약 2:25), 룻은 메시야의 조상으로 여겼으며, 박세바의 경우에도 다윗의 행위를 꾸짖었지 박세바는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런 여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에 올라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설리는 꼭 일상적인 관습 안에 갇혀 있지 않을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마태는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parthenogenesis)을 소개하면서 이성의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의 사건을 선포한다. 스땅다일(Stendahl)은 이것을 “하나님 섭리의 불규칙성”(divine irregularity)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해석한다.⁶⁾ 이 여인들이 갖는 두 번째 공통점은 모두 이방인 이란 것이다. 기독교 이전 유대교 문헌들을 보면 다말을 이방 여인으로 볼렸으며⁷⁾ 라합과 룻은 분명히 이방 여인이고 박세바는 이방 남자 우리야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된 경우이다. 이런 이방 여인들이 족보에 들어온 이유는 유대인 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설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⁸⁾

마태 족보는 예수의 합법적인 혈통을 밝히는 역할도 한다. 그 이유는 당시의 상황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예수도 유대교 회당에서 가르치시곤 했으며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기도 했던 것이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다. 초기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이었다. 이를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예수가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려 왔던 메시야임을 믿었기에 성전에서 회당에서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던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게 일어나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유대교 성전이나 회당에서 배척당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족보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함으로 유대인들을 설득시키려 했을 것이다. 둘째로 예수의 초자연적인 탄생을 믿는 기독교 전승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되었을에 틀림없다. 첼수스(Celsus: 주후 170-180년경)는 이미 “예수는 불륜의 관계로 태어난 사생아”라는 유대인들의 조롱을 알고 있었다. 이런 기독교를 반박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당시의 전해져 내려오는 족보를 토대로 예수는 합법적인 다윗의 자손이며 “다말, 라합,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탄생한 것처럼 하나님의 초

1) Willoughby C. Alle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T. Clark, 1977) 2

2) David Hill, *The Gospel of Matthew*, New Century Bible, (London: Olibphants, Marshall, Morgan and Scott Blundell House, 1972) 74; John J. Kilgallen, *A Brief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tthew*, (Lewiston, NY: 1992) 8

3) 마태가 사용한 구약 인용문들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번역본인 칠십인 역본(LXX)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며 그것도 사해에서 발굴된 자료들과 비교해 볼 때 루카만 본문과 관련된 옛 팔레스타인 전승 칠십인 역본 본문(LXX¹)들에 가깝다. 참조, F. M. Cross, Jr., *The Ancient Library of Qumran*, (New York: Doubleday, 1958) 124 이하

4) 마1장2절=대상1:34,2:1, 마1장3절=대상2:4,5,9, 마1:4-6절=대상2:10-13, 3:5,10-15, 마1:12절=대상3:17-19, 마1:13-16절은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이다. 그러나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기간에 기록된 유대인 자료들이나 또는 아람어로 기록된 문헌들에 의해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잘 알려진 인물들이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다. Edfu 파피루스(주전 3세기)에 유사한 이름들이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Aristeas 서신에 언급된 70인역 번역자 이름들 가운데, 요세푸스의 글이나 아람어로 된 파피루스 가운데 그리고 주후 1세기 묘비들 가운데서 이를 이름을 찾아 볼 수 있다. 참조, W.F. Albright and C. S. Mann, *Matthew*, 3; David Hill, *The Gospel of Matthew*, 74

5) Craig S. Keener,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tthew* 78

6) David Hill, *The Gospel of Matthew*, 74; Ulrich Luz, *Matthew 1-7, A Commentary*, 109; Keener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이삭의 아내 리보나야 야곱의 아내 라헬 같은 여인들도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胎를 열어주어 아이를 낳는 기적을 체험한 경우라고 지적하면서 마태족보에 여인들만 “하나님의 불규칙성”이란 틀로 보는 것을 반대한다. Craig S. Keener,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tthew* 79

7) 다말은 가나안 여인으로 여겼다. Pseudo-Philo의 *Biblical Antiquities* 9:5절에 보면 이방인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거절한 다말을 칭찬한다.

8) Eduard Schweizer, *The Good News according to Matthew*, trans. by David E. Green (Atlanta: John Knox Press, 1975) 25

자연적인 능력에 의해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라 부르는 예수”가 탄생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⁹⁾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족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제사장들 계열에 대한 족보는 공식적으로 계속 보관되어 왔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하였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를 등에 업고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헤롯 1세(주전 37-4)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매인”이라 부르는 애돌 사람이었다. 이런 헤롯은 통치 당시 정통 유대인 혈통을 이어받은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사람 안티고누스가 유대 민족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란을 일으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헤롯 1세가 죽고 팔레스타인은 셋으로 나누어져 헤롯의 혈통을 이어 받은 세 아들이 다스렸다.¹⁰⁾ 이방 혈통을 가진 헤롯 가문의 통치자들은 당시에 유다 왕이나 귀족의 혈통을 알려주는 많은 공식적인 기록들은 없애버렸을 것이다.¹¹⁾ 단지 개인적 기록들만 보전될 수 있었을 것이다.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3:23-38)는 좋은 비교의 대상이 된다. 마태와 누가 족보는 다음과 같이 서로 일치하는 점들을 가지고 있다. 예수는 요셉을 통해 이어온 다윗의 후손이다. 예수의 탄생은 동정녀 탄생(parthenogenesis)이고 기적의 사건이었다.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¹²⁾ 그러나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나는 점도 많다. 누가는 다윗 왕부터 그리스도까지 43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는 단지 28 명만 기록하고 있다. 누가는 다윗의 아들 나단(참조, 삼상 3:23-38)을 통하여 아담을 거쳐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마태는 왕의 혈통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차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누가는 예수의 혈통의 기원이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고, 마태는 예수가 왕의 혈통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누가의 족보(3:28이하)나 헬라식

9) Willoughby C. Alle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7

10) 헤롯 1세는 사마리아 출신인 4번째 부인 말파케(Malthake)를 통해 주전 25년경에 아켈라오를 낳고 주전 23년경에 헤롯 안티파스를 낳았다. 또한 예루살렘 출신인 5번째 부인 클레오파트라를 통해 주전 24년경에 빌립보를 낳았다. 아켈라오는 주전 4년부터 주후 6년까지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렸고, 헤롯 안티파스는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으며, 빌립보는 주전 4년부터 주후 34년까지 북부 트랜스 오르단을 다스렸다.

11) 주후 1세기까지도 유대 땅에 족보들이 있었다. 에스드라의 족보 (2 Esdras 1:1이하), 토빗의 족보 (Tobit 1:1), 유딧의 족보 (Judith 8:1), 마카비의 족보 (1 Maccabees 2:1) 등이 이런 사실을 입증해준다. 요세푸스는 제사장 족보 등과 같은 공식 기록들이 보관되고 있다고 한다 (Josephus, *Against Appion* 1:7, *Life* 1). 아프리카누스 (Julius Africanus)는 헤롯 왕이 이런 기록들을 없애 버렸다고 한다 (Eusebius, *Ecclesiastical History*, 1. 7. 13). Jack P. Lewis,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Part I(1:1-13:52), The Living Word Commentary, (Austin TX: Sweet Publishing Company, 1976) 36

12) W.F. Albright and C. S. Mann, *Matthew*, The Anchor Bible, 9th ed,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82) 6

족보는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상을 찾아 올라가는 순서를 보여준다. 이런 경우에 족보의 중심은 기록된 마지막 조상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태의 족보는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후손에게 내려오는 순서로 적었다. 이런 경우에는 족보의 초점은 마지막에 언급되는 후손에게 있는 것이다.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도 결국 마지막 이름인 노아에게 중심이 있으며 곧이어 노아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아담의 족보라기보다는 노아의 족보인 셉이다. 마태도 “족보”란 헬라어 구절 Βίβλος γενέσεως(비블로스 게네세오스)만 창 5:1절을 따른 것이 아니라 족보 형식도 창세기를 따르고 있다. 결국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니라 예수의 족보인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마태 족보의 조상들이 족보에 기록된 마지막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연관되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진행되어 왔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체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귀납적 방법에 의한 골로새서 1장1절 주석



구절 1: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구절 관찰 해석

1:1 본 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가가 (구절-의미-설명): 여기서의 “하나님”은 본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에게 특별하신 분이다.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거부했던 바울을 변화시켜 예수를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분이시다. 본 서신을 읽는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유대인들 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주적인 분이시다. 본 구절에서 “뜻”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θέλημα(렐레마)는 “의지, 목적, 목표, 계획”이란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란 의미가 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실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1:1 본래 “예수”的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스도”的 의미는 무엇인가(용어-의미-설명) “예수”(Ιησοῦς)는 히브리식 발음 “여호수아”(יְהוּדָה: 예호수아)가 변화를 거듭하면서 헬라식 발음 “예수”(Ιησοῦς: 예수스)로 되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야후”와 “구원하다”란 히브리어 “슈아”가 결합해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란 의미를 지닌 말 “야호수”로 발음하였는데 음성 변화를 겪으면서 “요수아”가 되었고 이것이 후기에 북부 지방 발음에 영향을 받아 “예수아”가 되었다. 이 “예수아”를 헬라어로 음역해서 “예수”(Ιησοῦς)로 쓰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란 “기름을 붓다”란 헬라어 동사 χρίω(크리오)에서 파생한 명사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 있다. 이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 단어 “메시야”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의 직분을 성별하기 위한 예식이었다(참고, 출 29:7, 삼상 10:1, 왕상 19:16).

1:1 본 절에서 “그리스도”와 “예수”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용어-관계-설명): 유대 전통 안에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두 종류의 가르침이 있었다. 하나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 왕권을 가지고 침략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 낼 것이라는 민족적인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초월적인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이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에게도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이 있었다. 그러나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는 한낱 갈릴리 출신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다.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란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그런데 본 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란 표현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란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런 표현은 바울의 인생을 크게 변화시킨 회심 사건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회심 사건을 통하여 바울은 그리스도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세주가 되심을 확신하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일리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1:1 본문에서 언급된 “사도”란 무엇을 말하는가(용어-의미-설명): 사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ἀπόστολος*(아포스톨로스)는 처음에는 초대교회에서 “위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의미로 사용되다가 후에는 초대교회 내에 직분을 가리키는 공식적인 명칭으로 정착되었다. 구약에는 사도라는 명칭이 없었지만 사도와 같이 권위를 위임받아 보냄을 받는 경우(왕상 14:6)를 볼 수 있다. 구약 예언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고 보냄을 받아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이었다. 모세도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애굽으로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었다. 부활 사건 후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위임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로서 처음으로 교회 내에서 “사도”라고 불렸다.

1:1 본 구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구절-의미-설명): 이 구절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사도”란 용어 자체가 “특별히 보냄을 받은 자”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 절의 “그리스도 예수”는 사도에게 권위를 위임해주신 분이란 의미가 있다. 즉 본 구절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권위를 위임 받은 사람”이란 의미가 된다. 둘째로 “사도”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 절의 “그리스도 예수”는 선포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본 구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란 의미가 된다.

1:1 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하는가(구절-의미-이유): 바울은 글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고 또한 당시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글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본 구절을 덧붙인 것이다. 또한 본 구절은 바울과 글로새 교인들을 뮤는 표현이기도 하다. 글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를 부여받아 교인들을 가르치는 사도이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글로새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바울이 이런 수직 관계를 설정하는 이유는 글로새 교회 안에 이단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렸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글로새서를 쓰게 된 것이다. 본 구절은 글로새서가 사사로운 개인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사도적 권리 아래 기록된 말씀임을 밝히고 있다. 만일 글로새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적 권리를 인정한다면 글로새서가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1:1 왜 바울은 글로새서 첫 문장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했는가(구절-의미-이유): 먼저 글로새서 첫 문장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밝혔다.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확신을 읽을 수 있다. 본래 사도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불였던 칭호였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사도로 임명하였다(행 9:1-6, 26:12-18). 바울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은 것이다(행 9:15).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바울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언급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바울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 또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목적이 있음을 확신하였으며 또한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

1:1 왜 헬라어 문장을 보면 “바울”이란 이름을 맨 처음에 기록하였는가(용어-구조-설명): 헬라어 본문을 보면 문장의 첫 단어가 “바울”이다. 이 이름은 글로새서에서 맨 처음 소개되는 단어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당시 편지 형식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당시 편지에서 첫 단어는 편지를 보내는 발신인의 이름으로 기록했기 때문이다.

1:1 “디모데”란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용어-의미-설명): “디모데”란 이름은 “귀하게 여기다, 공경하다”란 헬라어 동사 *τιμάω*(티마오)와 “하나님”의 헬라어 이름 *θεός*(페오스)가 결합된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란 의미를 지닌다. 디모데는 갈라디아 지방의 한 도시인 루스트드라에서 자라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의 첫 선교 여행 때에 루스트드라를 방문했다(행 14:8-21). 아마도 바울은 이 여행 때에 짚은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 유니케와 할머니 로이스(참고, 딥후 1:5)를 만났을 것이다.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도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가 살고 있던 루스트드라를 방문했었다(행 16:1-3). 디모데는 아마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그의 참 아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딥전 1:2). 디모데는 바울의 훌륭한 조력자가 되었다. 데살로니가에서(딥전 3:2, 6), 고린도에서(고전 4:17, 16:10), 그리고 마도녀에서(행 19:22) 바울의 조력자로서 큰 활약을 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

율의 마지막 여행에도 동행했다(행 20:4). 또한 신약에 있는 여섯 개의 서신들에서 디모데는 바울과 공동 집필자로 소개되었다(고후 1:1, 빌 1:1, 골 1:1, 딥전 1:1, 딥후 1:1, 롬 1). 바울과 디모데는 글로새가 있는 브루기아 지방을 함께 여행하면서 비록 글로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글로새 출신 교인들 즉 에바브라, 빌레몬, 아킬보, 암비아 등을 만났다.

1:1 본 절에서 디모데에게 불인 칭호 “형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용어-의미-설명): “형제”란 가정 구성원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분명한 것은 바울과 디모데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피붙이 형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본 절의 “형제”는 영적인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끼리 맺어진 새로운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본 절에 디모데는 바울에게도 형제가 되고 글로새 교인들에게도 형제가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서로 형제, 자매, 모친이란 마태복음 12:50절에 있는 예수의 말씀 또한 “형제”란 용어를 설명해주는 근거가 된다.

1:1 왜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를 언급했을까(용어-관계-이유): 발신인 이름으로 디모데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바울이 본 편지를 쓸 때에 디모데가 같이 있었다는 것이다. 글로새서 4:18절에 의하면 글로새서가 바울이 직접 쓴 편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마도 바울이 불러주는 것을 같이 있던 디모데가 받아서 쓰고 편지 끝에서 바울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연유로 디모데가 글로새서 공동 발신인으로 언급된 것이다.

“잃어버린 영성을 찾아서”



루터는 “오직 말씀으로”(Sola Scriptura)란 구호를 외치며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회복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에 있다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알맹이와 껍데기가 뒤바뀐 세상이 되었습니다. 알맹이는 성경본문이고 껍데기는 학문, 교리, 신조, 간증, 예화 등입니다. 껍데기는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껍데기를 알맹이로 착각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잠시 껍데기를 내려놓고 알맹이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본질인 말씀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외적인 성장과 외적인 활동에 치중하면서 내적인 성숙을 상실했습니다. 기독교의 깊은 영성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보다는 교리별 주제별에 따른 성경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리나 주제에 따라 성경본문을 여기저기에서 짜 맞추어 놓은 가르침에 익숙해졌습니다.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어가기 보다는 성경 안에 이 책 저 책에서 필요한 구절들만 뽑아서 엮어놓은 가르침에 익숙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방식의 문제는 가르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내용이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내에 여러 교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서로 다른 교리들이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큰 문제는 성경을 직접 대면하여 스스로 진리를 찾기 보다는 누군가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것을 받아먹는 일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소리를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편한 것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집중해서 천천히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 내용들을 묵상하고 진리를 찾아내려는 수고는 마치 시대를 역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런 수고를 누군가 대신해주고 그저 그 결과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수동적인 크리스천들은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의 참된 능력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을 여러 번이나 통독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이단들이 성경본문을 들이대며 설명을 할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단순히 쫓아내는 일에만 급급합니다. 기독교의 참된 회복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감에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묵상 수련법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적인 묵상 수련법을 “렉찌오 디비나”(Lectio Divina)라고 불렀습니다. Lectio(렉찌오)는 라틴어로 “독서”란 의미를 갖고 있으며 Divina(디비나) 역시 라틴어로 “신성한, 영적인”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렉찌오 디비나”는 “신성한 독서” 또는 “영적인 독서”란 말입니다. 깊은 영성을 위해 성경 본문을 신성한 마음으로 읽어가는 수련법이기 때문에 “렉찌오 디비나”를 한글로는 “영성 독서”라고 부릅니다.

이 “영성 독서”的 기원은 구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 이삭은 아내가 웰 리브 가를 처음 맞게 되는 그 시각에 “묵상을 하기 위해서”(ad meditandum) 들에 나가 있었습니다. 시편 1장 2절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묵상하는”(in lege eius meditabitur)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깊은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meditation)하던 구약의 “영성 독서”的 전통은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전승되었고 이후 오랫동안 수도원 내에서 실천되어 왔습니다. 본래 기독교인들은 매일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묵상하고, 묵상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후에,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권위를 상실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영성 독서”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쉽고 편한 것만 쫓는 세상에 물들어서 성경 안에 진리를 밝혀주는 “영성 독서”(Lectio Divina)의 수고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윤리나 도덕을 계산하려는 생물학



옥스퍼드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는 윌리암 헤밀턴(William Hamilton)을 진화론의 원조 찰스 다윈(Darwin) 이후 가장 뛰어난 다윈주의자라고 언급했다. 헤밀턴은 다윈이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헤밀تون이 풀어낸 공식이 곧 $rB>C$ 인 것이다.

다윈의 진화론에서 중심이 되는 원리는 곧 자연 선택(Natural Selection)이었다. 자연환경에 잘 적응하는 종들만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다. 종들은 생존을 위해서 부적절한 자연환경에 적응하도록 변화한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하지 못한 종들은 결국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환경에 적응하도록 변화된 종들은 그 변화의 유전자를 후손들에게 전달하면서 살아남게 된다. 이와 같이 거친 자연환경에 적응하도록 종들이 자연스럽게 변화를 선택하는 것을 다윈은 "자연선택"이라고 한 것이다. 이런 다윈의 자연선택의 근저에는 거친 자연환경 안에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기주의적 논리가 들어 있다. 이런 다윈의 논리에 거치는 것이 자연 안에 있는 생물들의 "이타주의(Altruism)"이었다. 어떤 생물들을 보면 남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들이 관찰된 것이다. 다윈은 종들 가운데 이타주의가 자신의 자연선택 이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보았다.

흡혈 박쥐라는 놈이 있다. 가장 깜깜한 밤중에 동굴에서 나와서 지면 위로 낮게 나르면서 냄새와 음향으로 먹이를 찾는다. 먹이가 발견되면 먹이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한다. 약간 떨어져서 조용히 땅 위로 내려앉는다. 그리고 먹잇감의 혈관에서 나는 소리를 향해서 날개로 걸어서 접근한다. 수술 칼보다 더 날카로운 두 이빨로 살을 찢어 상처를 낸다. 그리고 상처에서 나오는 피를 뺏아먹는다. 어떤 때는 자신의 몸무게에 해당할 만큼 피를 뺏아먹는다. 재미있는 것은 이 흡혈 박쥐란 놈이 매우 이타주의적, 다시 말하면 자기희생적인 동물이라는 것이다. 이 박쥐는 어두운 동굴 안에서 수백마리 때로는 수천마리가 함께 공동생활을 한다. 박쥐들은 계속해서 먹어야만 살 수 있다. 먹지 못하면 60시간 안에 굶어죽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박쥐들은 특이한 방법으로 먹이를 나누어 먹고 산다. 만일 한 흡혈 박쥐가 그날 밤 먹이를 찾지 못하면 그놈은 동굴 안에서 먹이에 성공한 동료 박쥐를 찾아 주동아리를 할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두 놈은 입을 맞댄다. 그리고 먹이로부터 피를 뺏아온 박쥐는 배에 채웠던 피를 토해내고 실패한 박쥐는 그것을 받아먹는다. 만일 그런 먹이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흡혈 박쥐의 80퍼센트 이상이 매년 사라져 버렸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흡혈 박쥐만이 아니다. 꿀벌들은 벌집을 지키기 위해서

벌침을 쏘면서 자살한다. 새들은 자기 자식이 아닌데도 남의 자식을 키운다. 인간들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다. 자연선택 이론에 의하면 산다는 것이 잔인한 생존경쟁일진데 어떻게 그런 자기희생적인 동물들이 번식하면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다윈 이후 진화론에서 계속되어왔던 고민이었다. 이 문제를 고민하던 헤밀턴이 1964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제시한 공식이 " $rB>C$ " 였던 것이다. 이 공식은 만일 종들끼리의 관계성(r : relatedness)이 고려될 때, 어떤 행동이 주는 유익함(B: benefit)이 그 개체가 지불해야 할 희생의 댓가(C: cost)보다 크면 그 종의 자기희생적인 이타주의 유전자들은 진화한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서로의 관계(r)를 숫자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하튼 이런 헤밀턴의 이론은 "적합성(fitness, 한 개체가 얼마나 많은 자손들을 관리할 수 있는가?)"를 정의한 다윈의 이론을 "한 개체(individual)"에서 "친족들(relatives)"까지 확대시켰기 때문에 "포괄적 적합이론(inclusive fitness theory)"라고 부른다. 결국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주의도 진화한다는 것이다. 헤밀턴은 자연에 있는 생물들의 이타주의를 수학으로 풀어낸 셈이다(물론 헤밀턴 이론에 반대하여 들고 일어난 하바드대 교수 곤충학자 E.O.Wilson같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정답이 나온 것은 결코 아니다. 여전히 자연 생물들의 "이타주의의 진화"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다. 과학자들이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과연 참된 이타주의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관대함이라는 것이 생존의 특징이냐? 살아있는 것들은 본질적으로 이기주의적이냐? 관대함은 단지 가면이냐? 더 나가서 과연 이타주의, 남을 위한 자기희생을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한단 말인가? 등의 문제들이 생겨난다.

Vanagon 이야기



언제였는지 년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충 4년 전쯤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뭘 일이 있어서 권사님 댁을 찾아갔다. 아마 그 전에도 몇 번 갔었을 터인데 오늘 따라 집 앞 길거리에 처음 보는 노란 Van이 서 있었다. 길 뒤쪽으로 주차하고 권사님 집 쪽으로 걸었다. 눈앞에 Van 유리에 붙어있는 종이에 For Sale이란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 권사님을 만난 후에 남편되는 파커씨에게 집 앞에 있는 노란 Van에 대해 물었다. 당시 헬리콥터 조종사 장교 출신으로 민간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파커씨는 웃음을 지으면서 입을 열었다. 본래 자기가 쓰던 차인데 너무 오래되어 차가 낡아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매연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통과 못하면 운행할 수 없고 그렇다고 정비소가서 고치려면 비용이 이만저만 드는 것이 아니란다. 하는 수 없이 3,000불에 팔아버리기로 결심했

다는 것이다. 판 돈은 교회에 현금하겠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면서 본래 고치고 뜯어 붙이는 일에는 흥미가 내게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래서 그 차가 뭔 차이냐고 물었다. 파커씨는 차 있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신이 나서 그 Van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본래 자기 아들하고 놀러 다니기 위해서 샀던 것이다. 그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최고의 차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차 뚜껑을 들어 올렸다. 웬걸. 차 지붕이 위로 올라간다. 그러더니 지붕 밑에 있던 침대를 펼친다. 거기에 두 명이 잠을 잘 수 있다고 한다. 물론 뒷 좌석도 펼쳐지기 때문에 침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다른 두 명이 잠을 잘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차 내부에 들어 있는 부엌을 설명해준다. 가스 렌지가 두 개가 있다. LPG 가스통이 차에 달려 있다. 그리고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그릇을 씻는 싱크대, 냉장고, 옷장, 등을 소개했다. 미국에서 15년 살았지만 이런 차는 처음 구경하는 나였다. 설명을 들으면서 입이 벌어질 지경이었다. 내심 이 차를 고쳐서 내가 써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마음에 차오르자 파커씨의 설명이 끝나기가 무섭게 입에서 이 차를 내게 달라는 말이 튀어 나왔다. 파커씨가 놀란 기색을 했다. 이 어 나는 내가 손재주가 좀 있으니 고쳐서 탈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장담했다. 목사가 차를 고친다는 것을 반신반의, 그것보다는 걱정하는 기색으로 별다른 주저함 없이 차를 그냥 내주었다. 차 키와 차 문서를 건네받는 순간 나에게 차가 새로 한대 생긴 것이었다.

미국에는 차가 필수다. 그런데 보스턴에서 가지고 내려온 차 한 대 가지고 네 식구가 사용하려면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침 차 한 대 Van이 생긴 것이다. 1983년도에 독일 Volkswagen에서 만든 Vanagon이었다. 오래전에 이미 단종된 차종이었다. 아무래도 좋았다. 차가 한 대 더 생겼으니. 내게는 미련할 정도로 도전해보는 모험심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차키를 받으면서도 자신만만했다. 차를 집으로 끌고 오면서 몇 번이고 길가에서 차가 설 뻔 했다. 4단 기어로 된 차였다. 이 Van의 기어를 넣는 것이 아직 익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한국에서부터 기어 넣는 차로 단련된 나에게 그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 Vanagon을 집 차고에 집어넣었다. 중요한 과제는 매연검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차를 수리하는 것이다.



이달의 종이비행기

F-16 팰콘 전투기

이경화 제공



F-16 팰콘 종이비행기

이 종이 비행기는 필자가 1969년 UNM대학에 유학생으로 알버커키에 와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한국에 두고 온 두 아이를 생각하며 이들이 오면 보여주려고 고안해서 접었던 종이비행기이다. 약 30년이 지난 뒤 손자,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생기면서 종이접기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도서관에 찾아가 여러 문헌 조사를 해보니 아무도 30년 전에 접었던 이 비행기와 유사한 종이비행기를 발표한 책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어 필자의 홈페이지에 이를 소개하면서 F-16이란 이름도 부쳤고 Copyright에 등록도 하였다. F-16의 날개와 몸체의 연결부분에 LEX로 알려진 미니 멜타형 날개연결 부분이 종이비행기 모양과 비슷한 점을 고려해서 F-16이란 이름을 붙였다.

F-16 파이팅 팰콘(Fighting Falcon)은 미국의 제너럴 라이내믹스사(현 록히드 마틴)에 의해 개발된 다목적 전투기이다. 1978년부터 미공군을 위해 배치 운용되기 시작했고 수출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두어 25개국에서 운용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4,400대 이상이 생산되었다. 한국 공군은 F-16C/D를 40기 도입하였고 국내 면허 생산한 KF-16을 120대를 포함해서 170대를 운용하고 있다.



택사스 상공을 비행중인 폴랜드. 공군의 F-16C(LMTAS ph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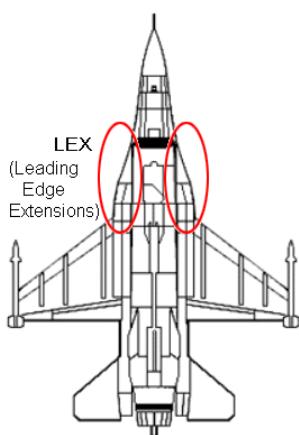
F-16은 알버커키에 있는 커트랜드 공군기지의 주방위군 비행단에서 보유하고 있던 비행기이기도 하다. 필자는 주 방위군 150 비행단에 있는 파이로트에게 나의 F-16 종이비행기를 접어서 보내 준일이 있다. 그의 답례로 비행단의 초청을 받아 기지를 방문하여 F-16 전투기를 자세히 구경하는 기회도 가진적이 있다.

아래의 종이비행기 접는 방법소개는 출판예정인 원고본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것이다.

F-16 Falc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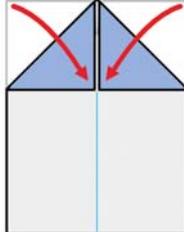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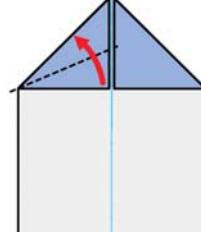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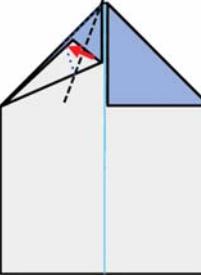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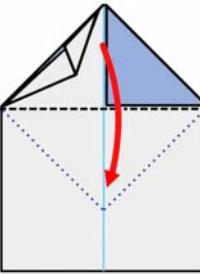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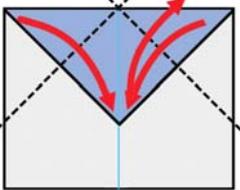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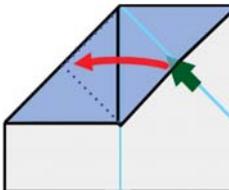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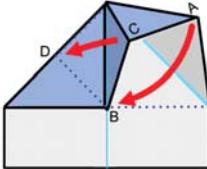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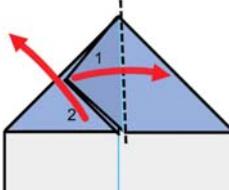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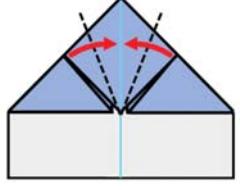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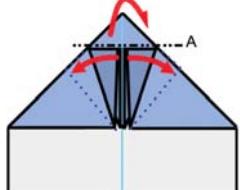
The F-16 Falcon Paper Airplane is my oldest design that has a swept wing with leading edge extensions (LEX). Leading edge extensions are often used with swept wings for the modern fighter jets to improve the flight performance at the high angle of attack. They are typically triangular in shape, running from the leading edge of the wing root to a point near the cockpit along the fuselage. Lockheed Martin F-16 Fighting Falcon is an example that has swept wings with LEX. This paper plane is named "F-16 Falcon" because of unique leading edge extensions with swept w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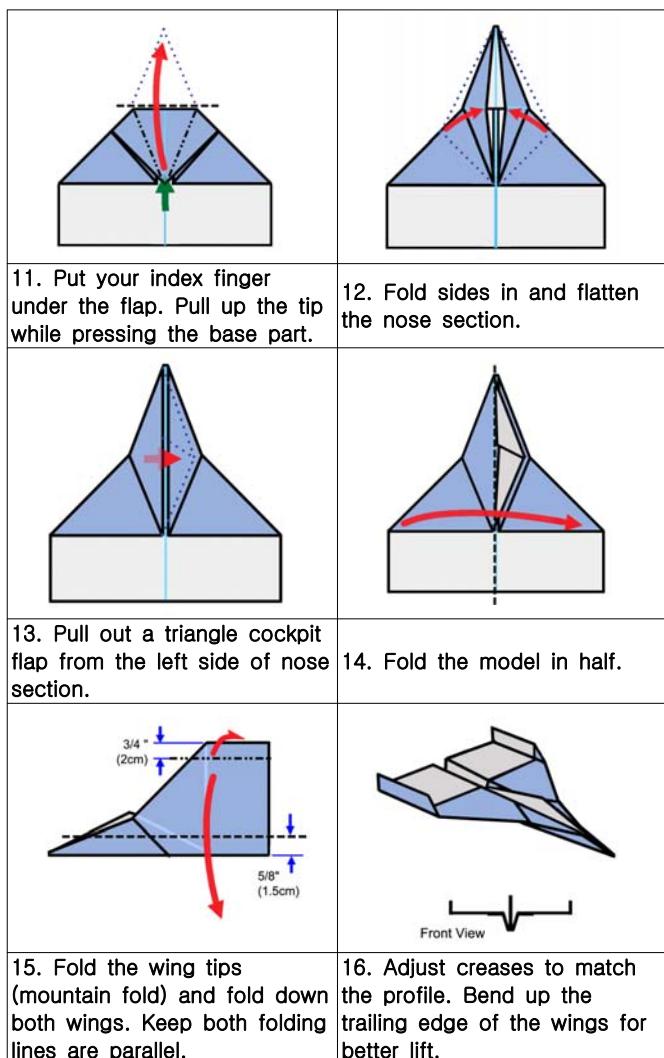
F-16 FIGHTING FALCON



Folding Instructions

You may download a patterned color sheet from:
www.amazingpaperairplanes.com

	
1. Fold the paper in lengthwise and then unfold the paper. Fold the top corners inward to the center crease.	2. Fold the left top layer to meet the sloping edge as indicated by the arrows.
	
3. Fold the left top layer again as shown in diagram. This part becomes the cockpit.	4. Fold the tip down along edge of the triangle top layer.
	
5. Fold the top corners inward to the center crease and unfold the right side corner.	6. Put your index finger under the flap and lift the flap toward left.
	
7. Flip the flap to the left side (C meets D) and flatten point A to point	8. Fold this new triangle flap to the right side. Unfold the left side flap and repeat steps 6-8.
	
9. Fold both flaps toward the center crease.	10. Make a mountain fold at the top corner section along line A. Unfold both flaps.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Lunch 11:00-2:0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12:30-8:00 Sunday

Yummi House 雅敎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 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8.95
삼선짬뽕 \$8.95
해물탕면 \$8.95
다섯가지 냉채 \$32.95
깐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8.95
탕수우육 \$11.95
양장피 잡채 \$17.95



USA Legal Group, Inc.

A Law Corporation

상해법, 교통사고, 파산법 전문 변호사



**Los Alamos 와 Albuquerque 인근에 산불로 인해 ash 가 집 혹은 건물로 날아들어 왔을때
compensation 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직까지도 보험회사로 부터 Los Alamos 산불 이나 Arizona 산불의 연기와 재로 인한

피해보상 비용을 받지 못하셨거나 deny 되셨나요?

**대부분의 화재보험은 외부지역에서의 재나 연기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clean-up cost이나 replacement cost 를 책임지고 배상해야 합니다.**

New Mexico Attorney: Charles Lakins

Donovan Kang(도노반 강): 사무실Office 505-563-5538

직통Direct 505-563-5539



ALLSTAR REALTY
OUR NAME SAYS IT ALL™

김영신 부동산

Associate Broker
7001 Prospect NE, Ste. 200
Albuquerque, NM 87110
yongfre@yahoo.com

505.321.7695 (cell)
505.888.1700 (office)
505.888.9650 (office fax)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Sun 4:00-9:30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ICHIBAN
Japanese Restaurant

一番 Japanese Food & Korean Food

Phone (505)899-0095
www.ichiban-alb.com
10701 Coors Blvd. NW Albuquerque NM
87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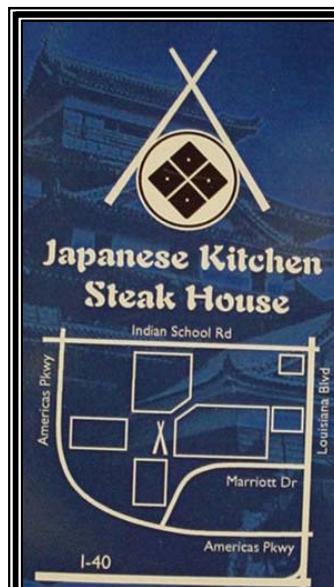
Armani Mansour
Licensed Sales Producer
The Keller Agency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24-Hour Customer Service

Allstate Insurance Company
6321 Riverside Plaza Lane NW
Albuquerque, NM 87120

Phone 505-898-8565
Fax 505-898-7674
armanimansour1@allstate.com



Japanese Kitchen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 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정식(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모듬정식(벤또), 해물우동, 튀김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풍지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야끼전문, 고기 종류와 해물 외 다수

Phone(505) 884-8937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BQ (505-275-9021)
Ar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Dinho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883-266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Fuji Yama: 5001 Central Ave NE ABQ (505-265-9774)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Pacific Rim Asian: 10721 Montgomery NE ABQ (505-271-092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BQ (505-833-575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Yen Ching: 4410 Wyoming NE, ABQ (505-275-8265)
Yummi House: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건축/페인트 Painting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BQ (505-999-8222)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부동산 Realtors

김영신 Yong Shin Kim: Jade Southwest Realtors (505-321-7695)

수잔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최귀분 Gui B. Bonaguidi:
The Ingles Company Realtors (505-828-1366)

세탁소 Dry Cleaners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66-3231)

신발 Shoes

Rio Shoes: Coronado Mall 6600 Menaul NE ABQ (505-883-9009)

의류 Clothes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9400)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1-6355)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Hair & Co(황경희):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Matthew Lee's Hair Style(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종교 Church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271-8031)

뉴멕시코 성결교회: 2801 Lomas Blvd. NE, ABQ, NM 87106 (505-238-3551)

샌디아 장로교회: 10704 Paseo Del Norte NE ABQ (505-823-1678)

알버커키 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lboquerque (505-803-7716)

알버커키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주택용자 Loan Officer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BBVA (Office 505-206-9963)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커피 재료 Coffee

Moons Coffee & Tea: 1605 Juan Tabo NE, ABQ (505-271-2633)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academy 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 (505) 296-0336

한의사 Acupuncture

Dr. Chang: 4716 Central Ave SE, ABQ (505-710-7504)

Dr. Park: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514-2900)

화랑 Gallery

Park Fine Art Gallery(박영숙):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27 (505-764-1900)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사진관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중재서비스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단요가 Dahn Yoga

알버커키 505-797-2211
커튼우드 505-792-5111
산타페 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틴 505-286-3535
www.dahnyoga.com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 #O Rio Rancho, NM 87124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io Rancho (505-994-8855)

클로비스 Clovis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츄럴: Los Alamos (505-662-9681)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5420)

산타페 Santa Fe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종교 Church

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

겔럽 Gallup

신발 Shoes

Rio Shoes: 1300 I-40 Frontage, Ste 304B, Gallup (505-722-5396)

모텔 Hotel/Motel

Day's Inn: 3201 W. HW66, Gallup (505-863-6889)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01 (915-276-2773)

화밍تون Farmington

종교 Church

화밍تون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가게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방 세놓음

깨끗하게 집을 사용하실 한인분께 집을 세놓으려고 합니다.

주소:
12613 Copperwood Dr NE ABQ NM 87123

월세는 주변 시세보다 약간 더 쌉니다.

625.00+half deposit

2Br. 780 Sqft, laundry hook up ,ref. No pet ,바닥(floor)은 타일로 다 새로 깔았습니다.

꼭 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은 전화주시면 보여드립니다.

Tel: 213-507-7985

(우표 값이 61센트에서 64센트로 올랐습니다)
광야의 소리를 1년 동안

집에서 받아 보시길 원하시는 분은 본인 이름 집 주소

65센트 우표 12장

또는 8불 짜리 check를

payable to "KUMC"로 써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If you want to receive this journal by mail, send by mail your name and address to following address with your \$8 check payable to KUMC)

To: Voice in the Wilderness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HUONG THAO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 Beer & Wine
Tues - Sat 11:00am - 9:30pm • Sun 11:00am - 8:30pm

1016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 (505) 292-8222

*Choices: pork, shrimp, chicken, beef, \$11.25 or any combo for \$11.95
Extra large add \$3.95 Extra noodles \$2.25 Extra Meat 2.95*

베트남 스프링롤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Sun 4:00-9:30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Everything You Need for Oriental Food

A-1
한국식품점

(505)-275-9021
1410 Wyoming NE

Mon~Sat 10:00~6:00
Sunday clos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뉴멕시코주 한인회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505) 271-1777 www.kaanm.com

stamp here

65 cent 우표
붙인 후 밖으로
집어서 발송



To: